

제8장

／
뭐가 표절이라는 거야?
／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 중에서 어디까지가 온전히 내 것이고 어디서부터 남한테서 가져왔는지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그렇다면 글도 마찬가지겠죠. 글도 내 것과 남의 것이 뒤섞여 들러붙어 있어서 어떤 글도 온전히 나 혼자 썼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소설가 신경숙 씨의 표절 논란으로 지식인 사회가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쓰는 글에 내 것과 남의 것이 뒤섞여 있다는 것은 글 쓰는 사람 누구도 표절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표절은 사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의 글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인 줄 ‘알면서도’ 자기 것처럼 써서 독자를

속이는 게 표절이라는 것이죠. 만약 모르고 그랬다면?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서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면(面)이 좀 깎이겠지만 작가로서 치명상을 입지는 않아요.

글 쓰는 사람들은 누구 것인지 확실하게 아는 정보와 논리를 가져올 때는 출처를 밝힙니다. 본문에 쓰기도 하고 각주로 처리하기도 하죠.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누구나 아는 것이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생략합니다. 결국 인용 표시를 할지 여부는 글 쓰는 사람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일이 다 표시하려면 한이 없고, 함부로 생략했다가는 표절이라는 지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게 글쓰기인데, 이런 걱정까지 한다면 더 어려워지겠죠?

글 쓰는 사람은 표절의 유혹 또는 표절이라는 비판을 받을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업 작가는 말 그대로 '고위험군(高危險群)'에 속하고요. 표절 논란에 휩쓸리는 것만으로도 작가로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신경숙 씨 사건으로 하도 시끄럽기에 제가 가진 지식과 정보 중에 스스로 만든 게 얼마나 되나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거의 없더군요. 지식과 정보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글 쓰는 데 동원하는 어휘도 누가 만들었는지 알

도리가 없고, 즐겨 쓰는 표현과 문장도 사실은 다 어느 책에선가 본 것이예요. 그러면서도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산다니, 신기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가 없어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정해진 형체가 없으니까 언어라는 그릇에 담아야 비로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슬프다, 기쁘다, 외롭다, 고맙다. 이런 말을 모른다면 슬픔, 기쁨, 외로움, 고마움과 같은 감정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모두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배운 겁니다. 말로 익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책에서, 남이 쓴 글에서 배웠습니다.

지식은 더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거의 다 어디선가 배운 것이지요. 어떤 지식이든 처음 깨닫고 전파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게 누구인지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책을 비롯한 여러 미디어에서 얻은 지식 가운데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을 추려서 기억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책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글을 독해해서 핵심을 발췌 요약하는 작업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디서 또는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잊어버리게 돼요. 이것을 다 확인해서 일일이 출처를 적으려면 글을 쓸 수가 없겠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고 쓸 때마다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

를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떨까요? 미친 거 아니! 그런 말을 들겠죠. 내가 만들어 내지 않은 모든 지식과 정보에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정보의 출처를 표시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먼저 텍스트 발췌 요약의 기본적 성격을 짚어 보아야 합니다. 공부와 글쓰기 훈련의 기본이 텍스트 발췌 요약인데, 표절의 위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요. 아래와 같은 의문을 가져본 분이 많을 겁니다.

발췌 요약과 짜깁기는 어떻게 다르죠? 아이 학교 숙제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 관련 찬반 글쓰기를 하는데, 인터넷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이게 맞나 의심이 듭니다. 글을 쓸 때 자료 인용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글쓰기 체력을 기르기 위해 발췌 요약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발췌 요약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이나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텍스트 발췌 요약은 글쓰기의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을 제대

로 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읽고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거 무슨 책이야?”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소설 전체를 아주 짧게 요약해야 합니다. 재미있냐고 물은 게 아니라 어떤 책이냐고 물었으니까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면 자신의 인간적 특성과 이력을 요약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요약을 하려면 먼저 발췌를 해야 합니다. 발췌는 텍스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요약은 그것을 원래 텍스트와는 다른 언어로 압축하는 작업이고요. 발췌가 물리적 처리법이라면 요약은 화학적 처리법이에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하려면 그 소설의 핵심 내용을 발췌해서 최대한 짧게 요약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렇게 말이죠.

옛날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인데, 스탈린 시대 사회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체제였는지 잘 보여 주는 소설이지. 그런데 재미도 있고 느낌이 진해. 문장도 훌륭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러시아 문학의 전통을 멋지게 체현한 휴머니즘 소설이지!

30초 안에 책 소개를 마치려면 이처럼 무지막지하게 내용을

압축해야 합니다. 원고지 10매 분량으로 서평을 쓴다면 더 자세하게 내용을 소개하고 발췌한 원문도 조금은 보여 줄 겁니다.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논문이나 비평을 쓴다면 소설 본문을 넉넉하게 발췌해 넣을 수 있겠죠. 이런 비평을 보고 싶다면 출처 《청춘의 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 열네 권을 각각 원고지 100매 분량으로 소개하고 비평한 책입니다.

‘슬픔도 힘이 될까’라는 제목으로 《이반 테니소비치의 하루》 서평을 쓰면서 솔제니친이 쓴 문장을 여러 곳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주인공 슈호프가 자기 저녁밥에다 심부름을 해 주고 얻은 남의 밥까지 2인분을 먹는 장면, 작업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도 벽돌을 쌓는 데 집중하는 장면을 길게 소개했죠. 하필이면 왜 그 대목들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의미 있고 중요한 장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장면을 뽑았겠죠.

발췌 요약을 멋지게 하려면 텍스트만 볼 게 아니라 콘텍스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대목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텍스트 해석에 달려 있고, 텍스트 해석은 어떤 콘텍스트에 비추어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니까요. 《이반 테니소비치의 하루》를 요약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여긴 콘텍스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 ① 솔제니친은 실제로 겪은 일을 소설로 썼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군복무를 하던 중 친구한테 쓴 편지에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여러 해 동안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었다.
- ② 스탈린이 사망한 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불합리한 개인 숭배와 가혹한 철권통치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으로 이 소설 출판을 허용했다.
- ③ 소련작가동맹 기관지 《노비 미르(신세계)》 편집장이었던 작가 트바르도프스키는 위대한 작가의 탄생을 확신하고 소련공산당 지도부를 설득해 이 소설을 잡지에 실었다.

이런 정보는 소설 안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알아야 솔제니친이 말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발췌 요약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 솔제니친의 문학에 영향을 준 다른 러시아 작가들의 소설까지 알면 더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죠. 저는 소설 주인공 이반 테니소비치 슈호프가 푸시킨과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 등장하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러시아인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극도로 정밀하게 묘사한 슈호프의 하루는 소련 인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대표한다고 해석했구요.

《이반 테니소비치의 하루》는 작가의 생애, 당시 소련의 정치 상황, 러시아문학의 전통, 《암병동》이나 《수용소군도》 같은 후속 작품에서 술제니친이 보여 준 철학적 문학적 성향까지 소설의 콘텍스트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해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해석이 달라지면 발췌 요약도 달라지기 때문에, 텍스트 발췌 요약은 콘텍스트를 얼마나 깊고 정확하고 풍부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해석에는 정답이 없으며, 발췌 요약 역시 모범 답안은 없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텍스트를 발췌 요약할 때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고 상상하면서 작업하면 좋습니다. 그거 어떤 책이야? 무슨 글이야? 주장하는 바가 뭔데? 그런 질문을 한 사람한테 자신이 읽은 텍스트를 쉽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겁니다. 발췌 요약 훈련은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텍스트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을 만날 수 있고 남들이 내가 쓴 요약을 쉽고 분명하게 이해하는지 점검하기에도 편리하거든요.

발췌 요약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표절이라는 원래 주제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표절을 도둑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엄정하게 말하면 도둑질은 아니에요. 도둑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글을 어떻게 훔칩니까. 글은 원래 있던 책에 그대로 있어요. 표절

은 독자의 믿음을 배반하고 작가의 평판을 해치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표절하는 사람한테는 달리 해 줄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해요. “글 쓸 때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인용 표시 없이 남의 글을 가져다 썼다고 해서 다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남의 문장을 자기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글을 가져오긴 했지만 내용을 압축하고 표현을 바꾸었기 때문에 굳이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겠고요. 물론 이런 경우도 표절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까지 다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글쓰기가 부담스러워지겠죠. 저는 잘 몰랐는데, 표절이라는 비판을 받을까 겁을 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가 봅니다. 아래와 같이 하소연하는 분이 드물지 않더군요.

‘저게 바로 내가 쓰려던 글이고, 내가 하려던 말이고, 내가 하려던 표현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용하는 문장마다 논문을 쓰듯이 다 각주를 달아야 합니까? 어디까지가 창작이고 어디부터가 표절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작가들도 이런 고민을 하나요?

전공 관련 책을 출간하려는데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창작인지 그 경계를 알 수가 없어요. 직장 후배들에게 경험과 전문 지식을 알려 주는 프로젝트 관리 관련 책을 내려고 하는데 표절과 창작의 경계가 모호해서 고민입니다.

소설가 신경숙 씨의 표절 논란이 터진 후 자신도 표절을 했노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작가가 여럿 있었습니다. “내 책에 쓴 이 문장은 사실 누구의 어느 글에서 가져온 건데 살짝 바꾸어 쓰면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 말을 하는 취지는 알지만, 조금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학술논문이나 문학작품, 신문 잡지에 기고하는 비평처럼 전문가와 대중의 평가를 받는 글이 아니라면 표절 여부를 심각하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쓰면서 표절 문제를 고민할 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남의 글이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쓸 때 그게 누구 말인지 밝히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지 표절 시비를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명한 작가나 학자를 인용하면 사람들이 더 좋게 평가하고 신뢰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표절과 창작 사이에 경계선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



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지 않은 곳은 좀 넘나들어도 괜찮습니다. 직장 후배들을 위해 프로젝트 관리를 주제로 한 책을 쓰는 경우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업무 관련 지식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낸다면 다른 책에 나온 내용이라 해도 일일이 인용 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표절은 아닐지 몰라도 모방에 그치지 않겠냐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걱정하는 분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방이면 어때서요? 창작과 모방 사이에 건너지 못할 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창작은 모방에서 출발합니다. 창작은 창조적 모방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남한테 배운 것 아혼아흠에 단 하나라도 스스로 생각한 것을 덧붙일 수 있다면 이미 창작의 영역에 한 걸음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남에게 배운 아혼아흠 모두에 인용 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문장을 남의 글에서 통째로 가져온 경우에 인용 표시를 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각주나 후주로 출처를 밝히는 것이죠. 원문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자료를 요약해서 한 문장이거나 한 단락을 썼을 때는 참고한 자료가 무엇인지 밝혀 두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좋은 지식과 정보를 알려 주시고 활용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저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둘째는 독자에 대

한 배려입니다.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이 자료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독자를 안내하는 것이죠. 일부러 독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다면 표절 시비에 대한 걱정은 접어 두셔도 괜찮습니다.

발췌 요약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글 내용이 99.9퍼센트 발췌 요약과 인용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독자들이 반겼던 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에는 새로운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잘 모으고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책도 위대한 고전만큼이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용 표시는 일부러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구태여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많다고 해서 창의성 없는 것도 아니요, 적다고 해서 꼭 창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신경숙 사건’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각할 게 많은 사건이었거든요. 신경숙 씨는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의 일부를 베꼈습니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죠. 이것은 해석이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문학평론가 이용준 씨가 신경숙의 소설 〈전설〉과 미시마의 〈우국〉에서 겹치는 문장을 뽑아서 나란히 세워 놓은 것을 보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15년 전 〈전설〉을 쓰면서 신경숙 씨가 ‘기쁨을 아는 몸’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포함한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한국어판 한 단

락을 의도적으로 베껴 썼을까요? 그렇게 단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도 그때 신경숙 씨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만큼, 이 판단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소설가 신경숙 씨가 굳이 남의 글을 베껴 원고지를 채워야 할 만큼 문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탁월한 문장력을 가진 작가라는 것은 표절을 했다고 비판하는 평론가와 독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썼지만 알고 보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소설가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을 읽다가 문장이 좋아서 마음에 넣어 두었다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썼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알면서도 크게 경각심을 느끼지 않고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 만요. 물론 어느 경우든 잘한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전설>에 대해 문학평론가 정문순 씨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후 신경숙 씨가 한 행동입니다.

다른 작가의 소설을, 그것도 하필이면 군국주의와 친황제 국가 회복을 주장하면서 할복자살한 일본 극우 지식인의 문장을 표절했다는 지적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인지 신경숙 씨는 반박도 해명도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남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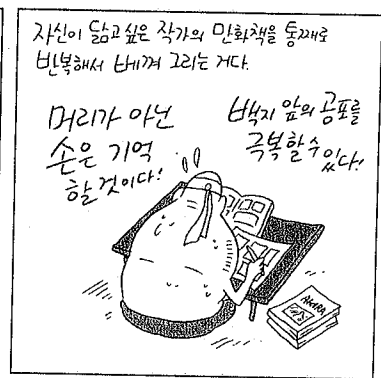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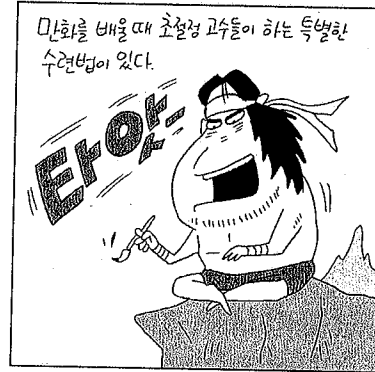
다른 작가의 표절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쳤던 문학평론가였는데도 말입니다. 신경숙 씨의 소설을 낸 출판사도, 신경숙 문학을 격찬했던 평론가들도 다들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출판사는 그 소설 제목을 <감자 먹는 사람들>로 바꾸어 재출간했습니다. 신경숙 씨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모두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형법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신경숙 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표절은 법률이 아니라 글 쓰는 사람의 양식과 평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위 문단권력 또는 출판권력과 연관 지어 이 사건을 평가하는 데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문학평론가가 아니어서 15년 전에 이미 누군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표절의혹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고 또 이슈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학평론가 이용준 씨는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글 한 편을 올림으로써 이 문제를 단박에 수면 위로 띄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려 15년 동안 여러 작가와 평론가와 출판 관계자들이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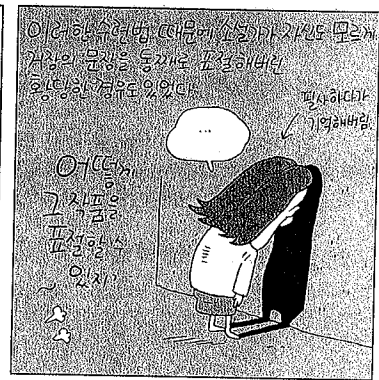
이것이 신경숙의 소설을 돌아가며 펴낸 몇몇 '힘 있는 출판사'

와 입김 센 문학평론가들의 권력 때문일까요?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무슨 옛날 중앙정보부라도 되나요? 베스트셀러 작가의 표절행위를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지하실에 끌려다 거꾸로 매달기라도 하나요? 무엇이 그리 두려워서 15년 동안이나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다는 말입니까? 이른바 문단권력과 출판권력 비판은 필요하지만, 모든 책임을 그쪽으로 떠넘기고 끝낼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신경숙 씨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표절 위험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용 표시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석과 참고문헌 목록이 길어져요. 서점에 나와 있는 교양서 가운데 주석과 문헌 목록이 수십 쪽이나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학술서적이냐 학위논문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높은 수준의 독창성과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쓸 때는 철저히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독자를 위한 교양서에 엄청난 분량의 주석과 참고문헌 목록이 붙은 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교양서에 주석과 참고문헌을 붙이는 목적은 표절 시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독자가 호기심을 느낄 때 더 상세한 자료를 찾아보게 하고 더 수준 높은 독서로 권유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주석과 참



어떤 작가든 소설적 요소도 가르치려 하는 <아키라> 선생님을 몇 번 배껴 봤더니 하는 얘기가 저절로처럼 내려오기도 한다.



고문헌 목록이 너무 많으면 독자들이 질리지 않을까요?

기나긴 주석과 참고문헌 목록은 여러 '합리적 의문'을 부릅니다. 글쓴이는 이렇게 많은 자료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 참고문헌에서 얻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추출하고 관리하고 활용할까? 어떤 기준에 따라 주석을 붙일지 말지 판단할까? 그런 의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더군요.

작가들은 책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적은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찾나요? 아니면 먼저 자료부터 찾고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을 간추려 글을 만드나요?

여러 논문과 자료를 읽으며 작업하다 보면 제 논문에 제가 쓴 글은 하나도 없고 온통 발췌와 인용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학위논문은 너하고 지도교수밖에 안 읽는다. 대충 베껴 써라." 훌륭한 지식인들의 책을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남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저를 발견하면 자괴감이 듭니다. "대가들이 이미 다 썼는데 굳이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연구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자신감이 없는 것일까요?

제 책을 사례로 삼아 대답하는 게 좋겠습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에는 각주가 전혀 없습니다. 99퍼센트 이상 발췌 요약이어서 출처를 일일이 표시하는 게 너무나 번거롭고 의미도 없는 것 같아 생략한다고 서문에 밝혀 두었습니다. 본문에 일부 인용 표시를 했고 사건마다 한 권씩만 참고도서 목록을 적어 둔 게 고작이었죠. 이 책은 제가 대학에 들어간 후 10여 년 동안 읽었던 역사책 가운데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을 발췌 요약한 책입니다. 텍스트 발췌 요약만 잘해도 책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눈 밝고 부지런한 분들이 《거꾸로 읽는 세계사》의 참고도서와 본문을 일일이 비교해 가면서 "이 책은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다른 책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더군요.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책은 99퍼센트 이상 발췌 요약이고 인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중요한 참고문헌을 밝히고 그것을 발췌 요약한 책이라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고 저는 믿었는데, 저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비난을 받을 소지를 아예 없애려면 최대한 꼼꼼하게 인용 표시를 하는 게 현명합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그야말로 우연히 나온 책입니다. 1986년의 일인데, EBS 국어강의에서 '밑줄 짝 돼지꼬리 땡'으로 대박을

쳤던 서한샘 씨가 교과서와 입시참고서를 내는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우리시대>라는 청소년용 월간지를 창간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그 잡지 편집자였는데, 저더러 드레퓌스 사건을 원고지 40장 분량으로 써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원고료를 두둑이 준다기에 제 이름이 아니라 지금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필명으로 써 주었습니다. 반정부 유인물 제작 자금이 달리던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드레퓌스사건과 지식인》(N.할라즈 지음, 황의방 옮김, 한길사)이라는 책을 원고지 40장 분량으로 발췌 요약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신문 잡지를 다 검열하던 때라서 불온해 보이지 않도록 말랑말랑한 청소년 버전으로 요약했죠.

그런데 출판사에서 독자 반응이 폭발적이라면서 연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예보사건과 제1차세계대전, 세계대공황과 제2차세계대전, 중동전쟁 순으로 일곱 번을 ‘편집부’ 이름으로 내 보냈어요. 저는 그 잡지 객원기자 신분증을 만들어 가지고 다녔는데, 그 덕분에 1987년 6월 10일 밤 명동성당 근처에서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새벽 훈방되기도 했죠. 취재활동 중이었다고 우겼거든요. 그런데 안기부에서 자꾸 뭐라고 했는지 사장님이 잡지를 폐간해 버렸습니다.

도서출판 푸른나무라고, 교육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당하

고 해고당한 교사들이 운영하던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편집장이었던 김진경 시인이 <우리시대> 연재글이 아깝다면서 책을 내자고 했습니다. 원래 기획했던 다른 쪽지를 마저 쓰고, 분량도 늘리고, 이젠 사전검열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내용도 더 화끈하게 만들자고 하면서요. 1987년 여름에 저는 ‘6·29선언은 사기’라고 정부를 욕하는 유인물을 만들다 들켜서 경찰 수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동안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던 연립주택 반지하 방에 숨어 지냈는데, 달리 할 일도 없고 해서 열심히 원고를 썼죠. 단편소설도 한 편 썼고요. 그게 《거꾸로 읽는 세계사》와 《창작과비평》 1988년 여름 호에 신인추천작품으로 실린 소설 <달>이었습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시민들이 20세기 세계사를 제대로 보면서 대한민국 상황을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쓴 책입니다. 표절이니 뭐니 그런 것은 아예 의식도 못했어요. 말 그대로 99퍼센트 발췌 요약 인용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예를 들어 베트남전쟁을 다룬 쪽지는 발췌 요약 텍스트가 《전환시대의 논리》(리영희, 창비),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사 연구》(더글라스 파이크, 녹두), 저자와 출판사는 모르겠고 제목만 기억나는 《베트남민족해방혁명시》 비슷한 제목이 달린 해적판 책이었어요. 이런

책들은 대부분 자취방이 경찰에 털릴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로 사용되던 '불은서적'이라서 참고문헌 목록에 넣을 수도 없었죠. 여하튼 그런 식으로 주제마다 기껏해야 서너 가지 자료를 읽고 요약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원래부터 깊이가 있거나 독창적인 책도 아니었고, 이미 팔릴 만큼 팔렸고, 좋은 세계사 책이 많이 나와 있고, 문장도 좋지 않고, 또 자꾸 표절을 했다느니 어찌니 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그래서 출판사와 합의를 해서 절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책이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진 말아 주십시오. 각주가 제법 많은 책도 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와 《나의 한국현대사》가 그렇습니다. 인용문 출처 표시와 참고자료 목록을 보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찾았을까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이 두 권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쓴 책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제 자신이 국가의 본질과 진화 과정을 알고 싶어서 공부하면서 썼죠. 국회도서관에서 국가론 관련 책을 검색해서 100권 넘게 빌렸습니다. 하나씩 읽으면서 흥미로운 대목마다 색종이를 붙여 표시했어요. 하나라도 색종이가 붙은 책은 따로 추려서 표시한 대목들을 발췌했습니다. 발췌한 인용문을 큰 주

제로 나누어 관련성이 있는 것끼리 묶은 다음 작은 주제로 또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의 목차를 만들었고, 엮어 놓은 인용문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제 생각을 보태 본문을 썼지요.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인용 표시가 촘촘하고 각주에 같은 자료 제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같은 책 ○쪽', '앞의 책 ○쪽', 뭐 그런 것 말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순전히 표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인용 표시입니다.

《나의 한국현대사》는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아무 참고자료 없이 생각나는 대로 제가 겪은 현대사 55년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초고를 쓴 다음,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자료를 찾아 가며 한 단락씩 확인했어요. 국회도서관 자료를 키워드로 검색해 연표, 백서, 연구서, 보고서, 단행본 책을 찾고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인구통계와 경제사회통계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고, 옳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사실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혀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죠.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예전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런 식으로 원고를 보충하고 수정하고 다듬었기 때문에 《나의 한국현대사》에는 단순한 출처 표시가 아니라 참고자료를 소개하고 해석하는 각주가 많습

니다.

사람 따라 책 따라 자료를 찾고 활용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써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어떤 글을 쓰든, 자료를 찾기 전에 먼저 질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을 잘 만들면 글은 이미 절반은 완성한 거나 다름없어요. 논문은 그보다 더합니다. 문장 기술보다 주제 설정과 자료 해석이 중요해요. 대학생들이 시험 대신 제출하는 리포트는 논문보다 수월합니다. 논문은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하지만 리포트는 관련 정보를 찾아서 잘 요약하고 주관적 견해를 살짝 덧붙이는 정도로 충분하거든요. 논문 쓰기에 관해서 받은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논문 쓸 때 주제 잡는 것도 어렵지만 목차를 짜고 순서를 정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먼저 차례를 정하고 글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글을 먼저 쓰고 목차를 짜야 하는지요?

석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논문은 주장이 뚜렷해야 한다고 믿지만 자꾸 관점이 흔들려 사실 관계만 나열하거나 양비론으로 마무리해 버릴까 고민입니다. 중국 시진핑 정부가 벌이는 '사회주

의 핵심 가치관 실천 운동'이라는 게 우리 70년대 국민교육헌장 보급 운동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학교에서 암송하고, 웅변 대회를 열고, 대입 논술을 출제하는 식입니다. 이 캠페인을 중국 특유의 시민 의식 회복 운동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체 주의적 지배 이데올로기 주입 기도로 보아야 할까요?

논문은 구조가 다 비슷합니다. 제목을 쓰고 차례를 적죠. 서론에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선보이고 본문을 쓴 다음 결론과 요약 붙입니다. 마지막은 참고문헌 목록이죠. 차례와 본문 중에는 차례부터 쓰는 게 맞습니다. 논문 주제를 정했으면 관련 자료를 찾아 읽고 필요한 정보를 대강 정리해서 본문의 내용과 흐름을 구상합니다. 그렇게 구상한 것을 소주제로 나누고,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소제목을 적으면 그게 바로 차례입니다. 차례를 만들려면 본문에 대한 구상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차례를 한번 정했다고 해서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차례에 맞추어 본문을 쓰다 보면 글이 처음 구상했던 것과 다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저 다르게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중 팔구 다르게 간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쟁점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 연구서와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바

꾸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례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런 수정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무엇부터 시작했든, 실제로는 본문과 차례를 나란히 번갈아 손보면서 쓰게 됩니다. 처음에 했던 구상과 그 구상에 따라 만든 차례, 둘 모두 임시적이라는 것이죠.

자료를 찾을 때는 지도교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우선입니다. 중요한 문헌 몇 가지라도 추천해 줄 겁니다. 그 문헌의 각주와 참고문헌 목록에서 관련 자료를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찾으려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대학교 도서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키워드로 검색하는 수밖에 없죠. 연구하려는 주제와 관련 있는 키워드로 자료 제목을 찾고, 그 자료의 목차를 들여다보면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웬만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활용하려면 직접 가서 열람하거나 대출해서 읽어 보아야 하지만요.

통계 데이터는 통계청 홈페이지나 국가통계포털(KOSIS), 정부부처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원본 통계가 아니라 목적에 맞게 해석하거나 가공한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면 국책연구소와 기업연구소, 시민단체 자료실을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부 기관은 '메타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소극적

이거든요.

중국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실천운동'을 거론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논문은 무엇보다 주장하는 바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관계만 나열하거나 양비론으로 가면 논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논문에는 어떤 것이든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니까요. 학문은 다수결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문에서 펼친 주장이 반드시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굳이 양비론을 취할 이유는 없죠.

중국 정부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실천운동'은 하향식 대중동원 캠페인이 맞다고 봅니다. 중국 경제는 사실상 국가자본주의 체제에 가까워요. 자본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자본 축적의 가장 강력한 주체라는 것이죠. 마르크스주의라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정치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아니라 '공산당 독재'입니다. 머리 좋고 말 잘하고 권력투쟁에 능한 엘리트들이 공산당독재 안에서 자기네끼리만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적 철인통치'라고 할 수 있죠. 중국 정부는 '신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중국 스타일의 개발 독재입니다. 물론 이런 판단이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주

장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문을 이렇게 쓰려면 다음 절차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① 주제를 명확한 형태의 질문으로 만든다.
- ②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논문 주제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그 현황과 성과와 한계를 요약 정리한다.
- ③ 기존 연구 결과를 반박, 보완, 수정,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사실, 가설, 이론, 해석을 제시하고 서술한다.
- ④ 논문에 담은 연구 결과의 학술적 의미와 가치를 정리한다.

간단하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학 학부 과정 리포트는 낮은 단계의 논문, 또는 논문을 쓰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리포트를 쓰는 대학생은 ①과 ②만 하면 됩니다. 주어진 참고자료를 읽고,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발췌 요약하는 것이지요. 더러 주관적인 해석이나 견해를 덧붙여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자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약했는지 여부입니다.

리포트 쓰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앞에서 했던 텍스트와 콘텍스트 이야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리포트를

쓸 때는 요약 정리해야 하는 텍스트의 콘텍스트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색깔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 스타일만으로 개성을 표현하려고 하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글쓴이의 개성과 색깔은 문장이 아니라 콘텍스트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를 반영하는 독자적 해석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문장에 집착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문장의 스타일에는 좋고 나쁨을 가리는 객관적 기준이 없거든요.

논문이나 리포트가 단지 학점을 따고 학위를 얻는 수단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쓰면서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읽고, 보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사회와 세상을, 관계와 삶의 의미를 더 깊고 넓게 이해하게 됩니다. '책만 보는 바보'는 없습니다. '책이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책과 현실을 분리하는 낡은 이분법에 빠지지 마십시오.

표절 시비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잊어버리십시오. 인용이 많다고 해서 글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정보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면 글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은 과감하게 인용 표시를 생략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최대한 표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입하

면 됩니다. 혹시 누가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 인용 표시를 생략한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표절은 허세를 부리려는 헛된 욕망의 산물입니다. 글로 누구한테 허세를 부리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표절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